

신장이식 환자에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A/H1N1 2009 감염 2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내과학교실

김정현 · 권순효 · 이은정 · 김은정 · 김태형 · 전진석 · 노현진 · 한동철

Two Cases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Caused by Hospital-Acquired Influenza A/H1N1 2009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Jung Hyun Kim, Soon Hyo Kwon, Eun Jung Lee, Eun Jung Kim
Tae Hyong Kim, Jin Seok Jeon, Hyunjin Noh, Dong Cheol Ha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서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였고, 면역 저하자들은 감염의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저자들은 신장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A/H1N1 2009 감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을 진단하고 이중 항 바이러스제 치료요법 (dual antiviral therapy) 후 성공적으로 치료된 2개의 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증례 1-38세 남자는 2002년 원인미상의 말기 신부전증을 진단받고 혈액투석을 시행하다가 2007년 남동생에게 신장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이다. 내원 3-4일 전부터 4 kg의 체중증가와 호흡곤란이 있어 입원하였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한 달 전 1.4 mg/dL에서 내원 당시 4.7 mg/dL로 상승되면서 만성 거부반응이 의심되어 고용량 단기 부신피질 호르몬 치료 시행하면서 경과 관찰 하던 중, 내원 5일째 부터 39도의 발열과 함께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항균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 시간 후 저산소증과 함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양측 폐야에 급격한 폐렴의 악화 소견이 나타나면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양상으로 진행하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에서 H1N1으로 인한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최근 원외에서 유행하였던 H1N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여 oseltamivir, amantadine 을 추가하였다. H1N1 real time PCR 양성인 인플루엔자 A/H1N1 2009 감염을 확진하였고, 항 바이러스 약제 투여 후 임상증상과 흉부 방사선 소견은 호전되어 퇴원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증례 2-51세 여자는 2000년 고혈압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혈액투석을 시행하다가 2007년 남동생에게 신장을 이식 받은 환자로 당뇨 발 감염으로 입원하였다. 왼쪽 발 절단술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 중에 38도의 발열과 폐혈성 폐렴이 의심되고 진균혈증이 발견되어 항균제 및 항진균제로 치료받던 중에도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면서 저산소증이 악화되었다. H1N1 real time PCR에서 양성소견이 보였고 증례1과 같이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흉부방사선 소견과 임상소견이 호전되어 퇴원 후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신장이식 환자에서 지역사회 및 원내폐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고전적인 원인을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였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적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Key Words: 인플루엔자, 신장이식

Influenza A, H1N1 subtype/kidney transplantation